

김옥임 교수가 쓰는 지족의 경제학 <16>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친숙한 경전은 <반야심경>이다. 한자로서 불과 262 개 문자의 짧은 경이긴 해도 여기에 대승불교의 엡센스가 축약되고 있다.

<반야심경>에 있는 사상은 공(空)이다. 모든 실체는 없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천한다는 법칙(無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나 마음을 구성하는 것(五蘊)도 모두 '이것은 XX 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 거기에 집착함으로써 번뇌가 부풀려 진다. 그러므로 '탐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에는 '관세음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완성시켜 온갖 미혹이나 고통 투성이인 이쪽의 세상에서 편안함으로 증진된 저 건너(彼岸)로 건너셨을 때, 육체도 마음도 그 모두는 공(空)임을 확인하시고 일체의 고통을 극복했다'고 한다. 여기서 '공'은 텅빈상태(虛空)가 아니고, 인연이 이룬 가상(假相)으로서의 실체가 없음을 뜻한다.

다음에, <반야심경> 가운데 핵심적인 한 부분을 살펴보자.

관세음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2대제자 중 한 분인 '사리자'에게 말한다.

"사리자여! 오온(五蘊) 가운데 색(色)에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물질로서 인식할 수 있다. 물질은 곧 공(空)이며, 공은 물질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오온 가운데 나머지 4가지인 수(受), 상(想), 행(行), 식(識)도 이와 같이 공(空)이다."

사리자여! 모든 존재가 '공'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는다.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은 생긴다든지 없어진다든지 그리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경전의 위 구절 가운데에 특히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일문은 색(色) 즉, 물질이나 물질적 현상은 모두 실체가 없다는 것, 무릇 실체가 없다는 것은 색=물질적 모습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알 것 같으면서도 기실은 알듯 말듯 여간 이해하기 어려운 일문으로서도 유명하다.

여기서의 색(色)이란 눈에 보이는 것, 형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결코 도(道)의 색(色)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 형체가 있는 것은 무상(無常)이며 공(空)이고, 항상 변화유전(變化流轉)하는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에 구애받거나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색즉시공(色即是空)이다. 후반의 공즉시색(空即是色)의 색(色)은 전반의 색즉시공의 색과는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색즉시공'으로서 일단 부정된 '색'이, 이번에는 공즉시색으로서 해 또 다시 부정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정의 부정 즉 2중 부정으로 긍정되는 것이며, 동일한 '색(色)'이라도 질이 달라지게 된다. 말하자면 변증법적 발전을 이룩한 색(色)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색 즉 물질은 어디에서나 있지만 그 실체가 없다. 따라서 탐착에서 벗어나는 데에 물질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있고 없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실상, 무엇이든지 만들어지고 무엇이든지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실상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자족의 경제학 토대

시장적 가치 증대인 성장지상주의만 탐착하지 말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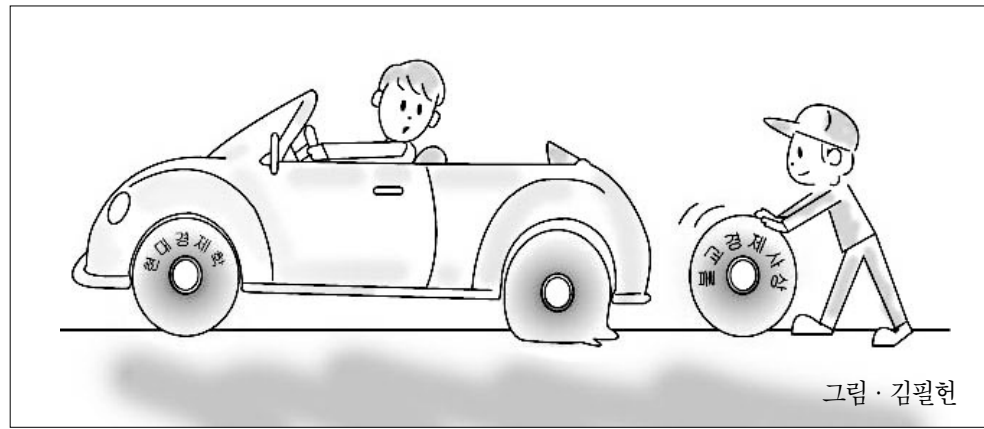


그림 · 김필현

이것을 경제와 관련시켜 현대식으로 어떻게 풀이해 보면 어떻게 될까?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싶다. 색(色)이란 눈에 보이는 것 형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로 말하자면 상품, 돈, 욕망, 생산, 소비이며, 혹은 기계, 석유이며, 이것들을 통해 GDP(국내총생산), GNP(국민총생산)이 만들어 진다. 이것들은 모두 즉, 시장적 화폐적 가치에 연관되어 있다. 이들 일체는 무상(無常), 공(空)이며, 그것에 구애받지 말라는 것이다. 시장적 화폐적 가치의 증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성장지상주의에 구애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색즉시공'의 경제적인 해석이다.

전술한 바 있듯이, '공즉시색'의 '색'은 부정의 부정 즉, 현실 내지 현재의 긍정에 의해 최초의 색과는 질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은 경제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떠한 의미인가?

최초의 '색(色)'은 시장적 가치, 화폐적 가치만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것이 변증법적 발전의 결과 시장적 가치 플러스 비시장적 가치로 팽창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의 비시장적 가치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지구, 환경, 대기, 토양, 대기, 물, 여유, 마음과 마음의 상호교류, 일하는 보람, 사는 보람, 진선미, 사랑, 공덕, 풍속 등을 가리키고 있다. 현실적이고 총체적인 삶살이나 생활은 시장적 가치만으로 영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시장적 가치도 불가결 하며 따라서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 양(兩) 가치의 균형이아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일단 부정된 시장적 가치는 부정의 부정 즉 현실의 긍정에 의해서 이번에는 비시장적 가치를 동반해 나타난다. 이것은 성장만능주의의 부정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

적 가치도 비시장적 가치도 다함께 긍정하고 융합하는 보다 높은 의미의 진전된 탈성장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공즉시색(空即是色)의 필자 나름대로의 경제학 해석이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색즉시공'은 성장지상주의의 부정이고 '공즉시색'은 탈성장주의의 진전이다.

이상과 같은 불교사상과 경제사상과의 융합으로의 시도위에 성립하는 불교경제사상의 특색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1) 자연환경과 인간과의 평등·공생(지구환경의 보전)
 - (2) 물질문명의 한계 간파(대대공업문명의 파탄·한계)
 - (3) 족(足)함을 아는 것(중도 = 절약·검소)
 - (4) 사적 이익추구 제일주의에 대한 의문(自利利他不二)
 - (5) 비시장적, 비화폐적 가치의 존중(대지, 자연, 환경, 목숨, 여유, 일하는 보람, 사는보람을 중시)
- 문제는 이들 불교경제사상의 특색을 기존의 현대 경제학에 어떻게 응용해 살려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교경제학으로서 이제까지 제기되어온 구상, 이념으로 이미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제창된 불교경제론을 바탕으로 그것을 한걸음 더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응용 경제학'의 한 분야를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가 불교경제 사상을 토대로 한 기반에서 '자족의 경제학'을 제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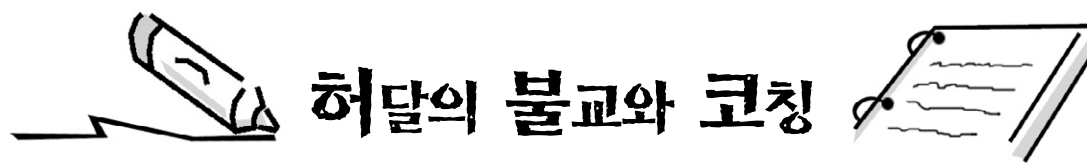
■ 인동대 경제학과 교수

16) 고객의 거울되기

주한 벨기에 대사를 역임한 네이스컨스 부처(夫妻)가 다음 일지인 콩고로 부임한지 일년쯤 뒤, 휴가를 얻어 서울에 들렀을 때, 흥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콩고의 언어에는 어제와 내일이 없다는 것이다. 오늘과 오늘 아닌 것이 있을 뿐, 당연한 일로서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 유실수(有實樹)를 재배하는 따위의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딸감을 위해 유실수를 베어 볼 때는 일은 있을지언정,

콩고의 언어에서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또 하나의 중요한 어휘는 '고맙다'는 말이었다고 한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대사관에서 일하는 콩고 일꾼들에게 칠면조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주었더니 도로 빼앗아 가더라도 할까봐 경계하는 태도로, 재어가듯 가져가더라는 것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생존이 참담했던 우리 상황에 비추어 미래를 준비하는 일, 선의와 배려 따위를 이해할 수 없는 콩고인들의 심적 상황이 아주 낯설지는 않았다.

벌써 오래된 일이나 전혀 다른 체험도 있다. 아침 신문을 받아 들고 읽은 그날의 가장 즐거운 뉴스는 스티븐 호킹 박사의 기구(氣球-balloon) 나들이였다. 기구를 제작해 제공한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헬륨을 기구에 실는 것에 안전장 '다소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예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 그 어려움을



허달의 불교와 코칭

급세기 영국인, 자신들의 자랑인 대 학자의 기쁨을 위해서 극복해낸 회사 기술진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 배려로 뿌듯한 것이었을까.

시간의 역행(逆行)이 존재함을 증명해 시간의 역사를 다시 밝혔다. 대 수학자, 물리학자에게 어린애 같은 꿈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만으로도 나까지 즐거워졌다.

2000년 9월 호킹 박사가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강연하던 날, 이어 제주도에서 가졌던 학술 세미나까지 만사를 잊혀 두고 거기에 달려갔던 것은 틀어도 잘 이해하지 못할 강연 내용에 관심을 가져서가 아니었다. 그를 그저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것이었을 뿐. 그의 미소는 특별한 것이었다. 컴퓨터가 느릿느릿 말하고 있었고 그는 그저 키보드 같은 것에 손을 얹고 웃고 있었다. 그것

은 육신의 불구 마저도 감사하는 듯한 무구(無垢)한 웃음이었다.

위의 두 예에서, 배려란 넉넉함의 산물인 것을 쉽게 깨닫게 된다. 이 넉넉함을 풍요의 심리(Abundance Mentality)라는 낱말을 써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코치는 넉넉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자신을 고객의 거울로 만든다.

요즘 많이 읽히는 한상복의 저서 <배려>에는 아스

'배려'란 넉넉한 마음가짐의 산물

퍼거 신드롬(Asperger Syndrome)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남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종의 장애를 뜻하는 말이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세계 속에만 갇혀 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남의 입장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만, 아스퍼거는 아예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아스퍼거를 사회적 의미로 확대시켜 '사스퍼거(Social Aspergen)'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즉 사회생

활 속에서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뜻한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나날 줄 모르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무자비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이러한 '사스퍼거'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삶의 의미나 목적은 잃어버린 채 목표를 향한 경쟁만 남은 오늘날의 현실에서 나누며 베푸는 것은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가치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경쟁과 이기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폐해들로 인해, 누구를 위한 경쟁인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이 '사스퍼거'인 줄 알게 할 수 있을까? 코치가 그들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 하는 것이다.

코치는 언어를 통해 고객의 거울이 되므로, 언어가 자칫 마술 거울이 되는 것을 경계한다. 마술의 방에서 대상을 둘러싸고 비추는 오목거울 볼록거울. 그 비춰진 모습이 또 다른 거울과 거울들에 굴곡돼 일그러질 때 또 그 위에 참 모습이 합성돼 함께 어긋거리고 간섭할 때, 어느 모습이 참 모습인지 알 길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코치는 늘 절제된 언어, 자이를 배제(Egoless)한 중립적 언어를 통해 고객 앞에 구면수차(球面收差) 없는 거울로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한다.

무명이 진여를 흡수해 존재라는 환(幻)을 내는 모습이 아마도 이 마술의 방, 중립된 마술거울 놓을 비슷하지 않을까.

언젠가 <대승기신론>을 읽다가 문득 일어났던 생각이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개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 귀장술 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 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厄運)을 막는 법
- * 집안 동토(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子)의 운(運)을 좌우(左右)하는 법
- * 취직(求職)시험·승진(昇進)시험의 합격(合) 판(判)단(斷)법
- * 선거(選) 후보(後)당(黨)선(選) 비(非)술(術)하는 여(여)부(婦) 판(判)단(斷)법
- * 관(官)청(廳)·공(公)무(務)원(員) 빈(빈)자(子)리(理) 입(立)관(官)능(能)여(여)부(婦)
- * 소송(訴訟)·관(官)재(在)사(事)의 승(勝)패(敗) 판(判)단(斷)법
- * 보고(報)고(告)싶(싶)은(은) 사(사)람(람), 기(期)다(다)리(리)는(는) 사(사)람(람) 소(소)식(식)가(가)능(能)일(일)
- * 가(家)출(出)자(子)가 언(言)제(制)쯤(쯤) 집(집)에(에) 돌아(돌아)올(올)까(까)?
- * 잃(잃)어버(버)린(린) 분(分)실(失)물(物) 위(위)치(치) 추(추)정(定)법
- * 도(道)주(主)·도(道)망(望) 사(사)람(람)이 어느(어느)쪽(쪽)으로 갔(갔)을까(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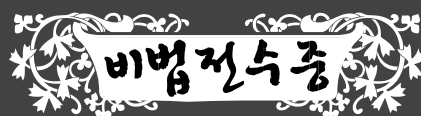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宗)원(源)귀(鬼)법
- * 12신궁에 암(暗)장(藏)된(된) 악(惡)령(靈)귀(鬼)신(神)
- * 귀(鬼)장(藏)술(術)歸(歸)藏(藏)術(術)로 보는 前(前)生(生)투(投)시(時)법
- * 前(前)生(生)의 夫(夫)婦(婦)인(인) 원(源)침(沈)살(殺)이 現(現)生(生)에 미(미)치(치)는(는) 현(現)상(相)
- * 귀(鬼)장(藏)술(術)歸(歸)藏(藏)術(術)로 뽑(뽑)은(은) 빙(氷)의(의)착(着)귀(鬼)신(神)론(論)
- * 귀(鬼)장(藏)술(術)歸(歸)藏(藏)術(術)로 뽑(뽑)은(은) 사(死)후(後)환(換)생(生) 귀(鬼)신(神)작(作)해(解)론(論)
- * 산(山)소(所)·무(無)덤(塚)에 관(關)해(해)서 [음(陰)택(宅)법]
- * 무(無)덤(塚)안(안) 유(遺)골(骨)의(의) 현(現)제(制)상(相)태(태) 알아(알아)내(내)는(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계좌 |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02) 3667-4446
010-3813-4443